

한국사회에서 조계종단의 위상과 역량*

김응철**

• 목 차 •

I. 서론

II. 조계종단 위상과 위상과 역량 평가를 위한 분석틀

III. 대한불교조계종의 위상과 역량 재인식

IV. 결어

* 이 논문은 2019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완하였다.

**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 『大覺思想』 제33집 (2020년 6월), pp.43-71.

한글요약

종교조직의 위상은 사회 구성원의 종교성, 종교 분포, 종교의 역사성, 문화 지도력, 정신적 영향력, 사회적 활동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형성된다. 한국사회에서 조계종단은 다양한 사회적 평가와 평판이 축적되면서 오늘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조계종단은 1700여년에 달하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다양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계종단이 이와 같은 위상과 역량을 갖게 된 것은 19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하면서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불교종단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통합종단 출범은 수행풍토를 쇄신하고, 광복이후 지속되었던 불교계의 갈등을 정리하고 화합을 일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조계종단은 불교계의 유일한 종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전통사찰과 문화유산들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구산선문의 수행문화와 비롯하여 교학체계, 율장정신 등 계정혜 삼학의 전통은 대한불교조계종단으로 계승되었다.

향후 불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보편화된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현재와는 다른 혁신적인 종교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불교에 적용된다면 방대한 경전이 모두 데이터로 축적되고 매우 쉽게 검색할 수 있다. 각 사찰에서는 문화체험과 상담, 사찰음식과 차, 그리고 수행자와의 대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포교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조계종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위상, 그리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는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종교적 역할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주제어

불교, 조계종, 역량, 전략모형, 변화

I. 서론

한 집단이나 단체가 사회 속에서 특정한 위상을 갖는 것은 여타의 다양한 사회조직과 구성원들의 관계 정립과 역할 수행을 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상(位相)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위치나 양상”을 말하는데 주로 사회 구성원들의 평가와 평판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종교조직의 위상은 특정 사회 구성원의 종교성, 종교적 분포, 종교의 역사성, 문화지도력, 정신적 영향력, 사회적 활동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형성된다. 한국사회에서 불교계의 장자종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조계종단은 불교계의 여러 종단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역할 수행,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평가와 평판이 축적되면서 오늘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은 1700여년에 달하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다양한 문화자산을 보유한 매우 특징적인 종교조직이다. 불교계에는 많은 종단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특히 조계종단과 같은 위상과 역량을 갖춘 단체를 찾기는 어렵다. 조계종단이 이와 같은 위상과 역량을 갖게 된 것은 19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하면서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불교종단으로 인정받으면서 전통사찰들을 비롯한 불교유산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통합종단 출범은 일제 강점기의 일본불교 침탈로 인해 훼손되었던 수행풍토를 쇠신하고, 광복이후 지속되었던 불교계의 갈등을 정리하고 화합을 일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당시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계의 유일한 종단으로 인정받았으며, 전국의 모든 전통사찰과 문화유산들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구산선문의 수행문화와 비롯하여 교학체계, 율장정신 등 계정혜 삼학의 전통은 대한불교조계종단으로 계승되었다.

조선시대 말에 1,200여개에 달했던 전국의 모든 전통사찰들은 법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단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사찰이 보유하고 있던 문화재, 토지, 건물, 그리고 인적 자원과 무형문화의 전통 등의 대부분이 조계종단의 자산으로 계승되었다.

1964년 통합종단에서 대치측이 탈종을 선언하고,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될 때 까지도 조계종단은 한국 사회의 유일한 종단으로 인정받았다. 광복 이후 20여년 넘게 지속되었던 비구승과 대치승의 갈등은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되면서 마무리 되었다. 이후 조계종은 전국 24개 교구본사 체제를 확립하고, 각 지역의 말사를 본사에 편입시켜 현재와 같은 종무행정 체계를 갖추었다.

조계종단의 사회적 위상은 단순히 한 종단에 대한 평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그것은 조계종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종교적 자산들은 한국불교 전체를 대표하는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계종단이 갖고 있는 문화적 지도력,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수행체계와 실참실수에 동참하는 수행자의 역할 등은 어떤 종교단체도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강점과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위상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지금까지 축적된 조계종단의 위상과 평가가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는 종책의 수립과 이에 동참하는 절대 다수의 승가 및 재가불자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계종단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로부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종교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종교성의 약화, 종교인들의 범계행위에 대한 사회적 질책, 종교집단 이기주의 만연에 따른 사회구성원들의 비판, 이로 인한 종교인의 이탈 등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조계종단은 물론이고 불교계 전체가 현재의 위상에 심대한 타격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맥킨지 분석 모형을 통해 조계종단의 역량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계종단의 위상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문화, 교육, 수행 등의 영역에서 조계종단 및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재조명하였다.

II. 조계종단의 위상과 역량 평가를 위한 분석틀

조계종단의 위상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¹⁾에서 개발한 조직진단 도구(tool)인 ‘맥킨지 7s 모델’을 선택하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맥킨지 7s 모델이란 공유가치(shared value), 전략(strategy), 조직구조(structure), 시스템(system), 스타일(style), 스킬(skill), 구성원(staff) 등과 같이 영문자 s로 시작하는 7개 요소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²⁾ 이 모형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종교집단과 기업집단 사이에는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도 나타난다. 따라서 종교조직의 평가와 기업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맥킨지의 분석 모형을 종교 조직의 평가모형으로 변화시켜 적용시켜 보고자 하였다.

1) 맥킨지 앤드 컴퍼니는 1926년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공인회계사인 제임스 맥킨지(James McKinsey)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로 자리 잡고 활동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987년 진출하여 주요 대기업의 역량 평가 및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랄프 쇼이스 지음, 안성철 옮김, 『전략사전』, 옥당, 2013, pp.270-280.

첫째, 공유가치(共有價值, shared value)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핵심이념이나 가치관, 목적” 등을 말한다. 대한불교조계종단의 공유가치는 종단이 제시하고 있는 종지(宗旨)와 종풍에서 찾을 수 있다.

종지(宗旨)란 종단의 핵심 사상, 교의를 말한다. 조계종의 종지는 종헌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표현)하고 있다. 조계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받들어 체득하고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한다.³⁾

조계종단의 모든 종도들은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⁴⁾을 종지로 삼고, 전법도생의 바라밀행의 실천을 통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 성불의 길로 매진하는 수행종풍을 받들고 있다. 조계종단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정해져 있으며, 경전의 연구와 염불 등은 제한하지 않음으로서 회통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조계종단의 공유가치는 계정혜 삼학을 토대로 수행하는 종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모든 정신적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탈지건을 갖추고 중생제도라는 원력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력은 도제양성, 역경, 포교라는 종단의 3대 지표로 종책화 되었다. 조계종단은 선(禪)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가풍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종파의 가르침을 회통하는 통불교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지종풍은 종단 산하의 모든 사찰로 확산되고 각 사찰의 신도들의 신행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리아타의 바라밀행은 조

3) 대한불교조계종 공식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자료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제2조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제3조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 지주 등은 제한치 아니한다.

4) 이 가르침은 선종의 달마대사와 혜가의 문답에서 유래한 것으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을 깨달으면 만 가지 행을 다 갖추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종도라면 누구나 신행활동의 원리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은 조계종단의 정신문화적 토대가 되고 있으며, 문화자산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계종단이 보유하고 있는 종지종풍과 종도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 현재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회피하고 지나치게 국소적인 부분에 집착할 경우 미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종단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불교계에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다.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과 결합되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행태를 매몰시키고 그것에 집착하는 조직의 쇠퇴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둘째, 종단의 전략(戰略, strategy)은 종단 소속 사찰들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내포하고 있다. 조계종단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은 종단의 삼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도제양성, 역경, 포교로 압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은 이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온 전략적 선택이다.

도제양성 전략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조계종단은 종단 기구로서 교육원을 설립하고, 산하에 각종 승가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도제양성을 위한 승가교육기관은 현대적인 승가교육과 전통적인 수행체험을 병행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사자상승(師資相承)이라는 매우 독특한 도제양성 문화를 만들어냈다. 지혜를 성취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승가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조계종단의 승가교육은 독신비구의 출가주의를 바탕으로 재가신도의 외호 속에 출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역경전략은 동국역경원 설립을 통해 한문으로 기술된 경전을 모두 한글화하였다. 그리고 한국불교전서에 포함된 각종 선사의 어록과 저술들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불교의 세계화 전략을 실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불교에 관심

을 갖고 수행전통의 체험과 출가를 유도하고 있다.

포교전략은 포교원을 설립하고 “지금 여기 - 분다로 살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신도교육과 전법단 운영, 각종 포교단체 육성, 신도등록 사업 등으로 전개되었다. 신도교육은 입교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재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신도 포교원 인가를 받은 신도 전문교육기관은 조계사불교대학을 비롯하여 국내외에 총 156개소에 달한다. 신도교육은 품계제도와 연계되어 지속적인 교육과 실행 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계종단의 3대 종책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향후에도 계속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종단 다양한 구성원인 종도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아쉽게도 도제양성 전략은 사회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저출산 고령화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로 인한 위험사회 도래를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전략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1962년 통합종단 출범 때부터 만들어진 도제양성 방법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현재 독신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조계종단의 제도는 출가자 감소로 위기에 직면했다. 저출가는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종단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경 전략은 역경연구원을 통해 어느 정도 완성되었으며, 종단에서 배출한 스님과 각 대학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재가교수들에 의해 다양한 번역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렇지만 불교적 전문성이 있는 대학에서 교학적 지식과 언어 역량을 갖춘 역경 전문가 배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이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경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가, 편집자, 북디자이너, 운문 교정자 등의 발굴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교계는 일반 대중들의 참여가 가능한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분야별 인재양성이 쉽지 않다. 앞으로 재가불자들도 동참할 수 있는 인재양성 기관 설립과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조계종단의 포교전략은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큰 성과를 축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전국적으로 불교대학 설립을 촉진시키고, 필수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신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 점이다. 그러나 신도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교역자의 발굴 육성이 미진하였기 때문에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 입학자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셋째, 종단 운영 시스템(system, 체계)은 조직의 관리체계나 운영절차, 제도 등을 의미하는데 종무원을 비롯한 종도들의 조직적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조계종단의 운영 시스템은 승가의 인적 관리체계인 수계제도, 사찰 및 신도 관리체계, 종단 재산관리체계 등 여러 가지 절차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승가는 사자상승의 전통에 따라 스승과 제자의 법연으로 법맥이 이어지며,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수행처에 매년 2,000여명 이상의 스님들이 방부를 드리고 있다.

승가 교육체계는 출가, 행자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수교육 등으로 이어진다. 출가과정에서의 행자교육은 행자 등록 후 수계교육 입교일까지 등록 사찰에서 11개월간 진행하는 일상교육, 행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입문교육, 교구본사에서 상주하며 교리, 염불, 습의, 운력 등을 익히는 본사교육, 그리고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수계교육 등으로 이어진다. 행자교육을 마친 출가자는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기본교육기관인 지방승가대학(강원),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 진학할 수 있다. 여기서 4년 교육을 마치면 구족계를 수지하고 인천(人天)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실천한다.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은 계율, 참선, 불교전적 등을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인 승가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기관으로 불교문학, 불교미술, 불교음악, 불교건축 등의 문화예술 분야와 전법인력 양성에 필요한 신문, 방송, 영상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신도교육 체계는 새신도로 입교 한 후 신도등록,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재교육, 지도자 교육 등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신도등록과 기본교육 및 재교육은 각 사찰에서 정해진 일정과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전문교육은 포교원의 인가를 받은 지역의 불교대학에서 운영하며,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포교사 고시에 응시하고 전문포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신도교육을 이수한 불자들은 각 사찰에서 신도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찰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찰의 재화는 모두 종단 소유로 귀속되기 때문에 각 사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강제수용이 될 경우에도 단위 사찰과 종단의 협의 하에 공동예치한 후 대토(代土) 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종단의 삼보정재(三寶淨財)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을 종단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투입할 수 있다.

조계종단의 산하 사찰의 운영 시스템은 주로 주지스님의 원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성과 책임소재는 분명한 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찰들이 주지스님의 주관적인 결정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신도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종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대중공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찰 운영체계는 신속성과 책임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과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찰의 운영은 주어진 예산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하고 지출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중첩되어 있다. 신도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사찰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불자들의 유입이 가능하다. 또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찰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사회적 평판과 종교적 위상을 갖추는데 긍정적이다.

넷째, 조계종단의 조직구조(組織構造, structure)는 중책을 실천하기 위한 틀이다. 조계종단은 종정, 원로회의, 입법기관인 중앙종회, 종무행정 집행기관인 총무원·교육원·포교원, 그리고 종단 분쟁을 심판하는 호계원 등의 하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총무원 산하에 한국불교문화 사업단, 한국문화연수원, 불교사회연구소, 불교신문사, 가사원, 연등회보존 위원회, 사회복지재단,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아름다운 동행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단은 전국을 24개 교구로 구분하고 2,700여개에 달하는 사암(寺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군중특별교구와 해외특별교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직능적,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계종단의 조직구조는 천년 이상 된 고찰을 중심으로 교구본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구본사체의 도입과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권력분산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단의 전체적인 조직구조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약한 편이다. 조직 구조상 종무관리 역량은 강화되었으나 종단 내에서 포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결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인력이 부족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이 불교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조계종단의 인적자원은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서 종단 전체적으로 보면 인재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승가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도제 양성 정책을 수립했으나 출가자의 급격한 감소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는 재가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출가자가 담당했던 분야의 빈자리를 채우는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스타일(style)은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관리, 경영 방식이나 지

도자의 지도력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스타일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조직 고유의 문화로 정착하게 된다. 조계종단은 중앙집권적 종권구조의 전통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교구 자치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중앙종무기관은 입법기관인 중앙총회, 사법기관인 호계원, 그리고 집행기관인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운영된다. 종무행정은 중앙집권적인 통제 문화가 작동하고 있지만 교구자치체를 도입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이 종무행정 및 지역포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조계종단은 오랜 동안 비구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비구니 스님들도 종무행정기관에서 소임을 보고, 교구본사에서 역할을 하는 등 종단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재가불자들도 사찰운영에 동참할 수 있는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유급 종무원과 자원봉사자로서 사찰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신도들은 교구신도회와 중앙신도회를 통해서 교구 및 중앙종무기관 행정에 다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출가주의 종단에서 재가불자의 역할은 보조적이고 외호적인 측면에 머물게 된다. 그런데 출가자가 많을 경우에는 출재가의 관계가 엄격하고 거리가 있어도 불편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출재가의 신분이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할 경우 종단이 공동화 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승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재가불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야별로 출재가 사이에 협력적,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직관리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출가자 중에서도 비구와 비구니 스님의 신분적 위계를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향후에는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의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도력 발휘가 필요하다.

여섯째, 조계종단에서 직원(職員, staff)은 종무원을 지칭하는데 출가종무원과 재가종무원으로 구분된다. 종단의 주요 인력은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 교구본사 및 단위 사찰의 종무원, 그리고 종단 산하기관의 일반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종단의 각 기관들은 업무영역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종무원의 능력이나 전문성도 다양하다. 단위 사찰에는 사찰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들이 배치되고 있는데 주로 기능직(技能職)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교구본사나 중앙종무기관에서는 종무행정 전문가의 수요가 많은 편이다.

종무원은 계선조직의 일원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행정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출제가 모두 전문 포교사로서의 원력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다.

사찰이나 각급 종무기관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은 주로 순종적인 종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순종적일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지시사항을 이행만 하는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각 종무기관과 세부 부서별로 반드시 필요한 인재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종무원의 채용은 연고주의에 의존하기 보다는 입사 단계부터 능력을 점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일곱째, 스킬(skill)은 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로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기법, 능력, 마케팅 능력, 동기부여,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스킬을 종단의 종무원에게 적용할 경우 종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종무행정의 집행, 포교방법의 개발과 적극적 활용, 종도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 종무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종무원의 관리 능력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포교는 종단과 사찰의 존립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문적 기법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포교 영역에서는 마케팅 포교 방법에 대한

연구와 함께 불교, 사찰, 스님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일반 사회구성원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일환으로 유튜브 방송, 위성 TV나 라디오와 같이 공중파를 이용한 대중포교 방법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만 종단 차원에서는 유튜브와 같은 SNS 활용 방법에 대한 종단적 차원의 연수, 교육, 개발 등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포교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포교 전문가 양성에도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III. 대한불교조계종의 위상과 역량의 재인식

1. 문화적 위상과 역량

한국불교는 1,7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일정기간 국교(國敎) 혹은 주류 종교로서의 전통과 위상을 유지하였다. 특히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는 국교로서 존숭의 대상이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정책으로 많은 탄압을 받았으나 주류 종교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위상 때문에 한반도의 종교문화는 불교문화가 주축을 이루었으며, 불교문화재는 국가 문화재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 문화적 전통은 현대사회에서도 계승됨으로써 불교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원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문화적 위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불교 유형문화재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국가 문화재의 보고(寶庫)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⁵⁾ 국보급 문화재는 2016년까지 총 325점이

5)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각종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를 더 세분화 하여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지정되었는데 이중 불교 문화재는 총 166점에 달한다. 대표적인 국보급 문화재는 국보 제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국보 제4호 여주 고달사지 승탑,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20호 경주 불국사 다보탑, 국보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 국보 제128호 금동관음보살입상, 국보 제202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 국보 제300호 장곡사미륵불 괘불탱 등 다양하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목조 및 석조 건축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등이 있는데 현재 1906호까지 지정되었다.⁶⁾ 이 중에는 보물 제2호 옛 보신각 동종, 보물 제3호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보물 제7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탑, 보물 제10호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물 제10-6호 사인비구 제작 통도사 동종, 보물 제23호 김제 금산사 석련대, 보물 제45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1903호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보물 제1903호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등 절대 다수가 불교 문화재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불교의 무형문화재는 한국사회의 문화원형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보존해야 할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는 총 135건이 지정되었는데 이중 대표적인 불교 무형문화재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 삼화사 수록재와 제126호 진관사 수록재, 제127호 백운사의 아랫넛 수록재 등이 있다. 그리고 영산재도 한국불교태고종을 중심으로 1973년 중요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

6) 2006년 종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보물은 총1431건이었으며, 이중 불교문화재는 935건으로 전체의 65.3%로 보고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전국 본말사 주지연수 자료집』, 2006, p.186.

어 계승되고 있다. 제122호 연등회는 종단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2012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수륙재와 영산재에는 불교음악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범음작법,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진설음식, 청정도량임을 표현하는 괘불과 각단 탕화 및 각종 장엄물, 지의지화(紙衣紙花), 재의식의 사상과 내용을 표현하는 수인작법, 재의식을 병행하는 의궤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 속에는 전통 국악과 가무, 탕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술 기법, 전통 음식 등의 원형이 내포되어 있다. 이들 문화적 요소는 동참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청정하고 성스럽게 해주는 효과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의 무형문화는 육근청정문화⁷⁾라고 지칭할 수 있다.

셋째, 불교문화는 우리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문화지도력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한 원효대사, 화엄으로 불이사상을 제시한 의상대사, 조선시대 한글창제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신미대사, 임진왜란기에 승병을 모아 국난 극복에 앞장선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은 오랜 세월이 지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교의 유형과 무형 문화재의 경우에도 민중들의 삶 속에서 살아남아 미래를 향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전통 한옥의 건축 기법은 사찰의 전각에서 그대로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요소들은 그것을 전승, 발전시키는 전문가들을 육성하게 함으로써 문화지도력을 전승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종교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전통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종교문화는 정착과정이 길고 비판, 배척, 탄압 등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

7) 육근(六根) 청정문화는 안이비설신의 등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의미함. 육근에 의하여 대상 즉, 색성향미촉법을 접촉하게 되고, 이것으로 육식(六識)을 만들어 냄.

게 전통문화로 자리 잡기 어렵다. 그렇지만 한번 정착된 종교문화는 쉽게 사라지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생활문화로 정착될 경우 언어와 문자, 지명 등으로 남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지명, 산 이름 등은 쉽게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을 이어간다.

2. 교육적 위상과 역량

불교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위상은 전통적인 승가교육과 현대적인 신도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승가교육은 교육기관의 운영, 교육교역자의 양성, 교육내용과 방법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통교육의 원형이 내포되어 있다. 전통 강원의 교육방식은 옛 서당과 유사한 특징이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강주의 역할과 배출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전통적인 경전의 교육방식은 주로 독송을 암송을 위주로 강론을 통해 해석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계종단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전통 강원의 승가교육을 계승하고 있는 지방승가대학과 현대적인 승가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중앙승가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의 불교학부에도 스님들이 수학하고 있다. 교육원에서는 승가 기본교육기관의 교육 효과를 평준화시키기 위해 강원을 지방승가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전통적인 내전과 더불어 다양한 외전을 교육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전국의 승가대학(강원)의 교육은 전인적 교육으로 산중에 있는 사찰에서 수행습의를 익히고, 염불의례와 더불어 교학의 체계를 갖추는데 매우 유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통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전은 조선 시대 중기 이후 서산대사의 노력에 의해 제시된 교육과목이었다. 전통적 승가교육은 치문에 이서 서장, 도서, 절요, 선요 등의 사집과목을 통한 수행 방법을 배우고, 원각경, 대승기신론, 금강경, 능엄경 등의 대승 경전

을 공부함으로써 수행에 대한 경전적 근거를 확립하는 사교과와 수학과 화엄경과 선문염송, 경전전등록 등을 통해서 보살행과 수행의 차체를 공부하는 형태로 전승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승가교육이 내전 보다는 외전, 수행 보다는 교학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법교화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단의 종책적 판단으로 생각된다. 다만 전통적 승가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학인의 근기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전인적 교육방식으로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장점이 있다. 서양의 멘토와 멘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1:1 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인 인재양성 교육이라 평가할 수 있다. 멘토 교육방식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1인이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승가교육에서의 사자상승의 교육은 이와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승가교육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인들을 소규모 집단으로 모아서 함께 수행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획일화될 수 있는 멘토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승가교육에서 교육교역자의 양성은 전강(傳講)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강은 불교에서 제자들에게 강맥(講脈)을 전수하는 교학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부처님과 스승으로부터 교학적 토대를 물려받는 것으로 스승의 강맥을 전수 받음으로써 전통 강원의 강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공인받게 된다. 전강을 통한 강맥 전수 문화는 교학 연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우수한 교학자를 끊임없이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교육은 석사와 박사 등의 학위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강맥을 통해 승가교육의 자격을 인정받은 교육교역자들이 다시 대학에서 불교관련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교학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앞으로도 종단에서 종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한다면 승가의 교육적 위상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다.

승가교육의 위상과 역량은 신도교육의 질을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도 기본교육기관인 불교대학은 성인교육, 평생교육, 문화교육 등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불교적으로는 신도교육과 재가불교지도자 양성, 불교전문 봉사인력의 양성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

3. 수행적 위상과 역량

불교는 수행자들이 보여주는 수행력과 자리아타의 보살행을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지혜의 등을 밝혀 많은 사람들을 행복의 길, 열반의 길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청정한 수행자의 수행력은 사회를 정화시키고, 자리아타의 보살행을 실천하게 이끌어 주는 정신적 지도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

조계종단의 수행가풍은 간화선이 토대가 되고 있다. 간화선은 육조 혜능선사의 조사선의 흐름을 전승하고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선풍의 영향을 받았다. 신라말 고려초의 구법승들이 조계산에서 수행한 혜능선사와 그 문하에서 수행한 제자들의 가풍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조계종의 종명과 돈오선법의 수행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국사는 혜능선사의 4세인 서당지장(西堂智藏, 735~514)선사의 법을 이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고려 초기에 이르기까지 구산선문이 형성되었다.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에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 선사가 정혜결사를 전개하면서 대혜어록을 중심으로 간화선 수행풍토를 체계화하였다. 고려말에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0), 나옹혜근(懶翁惠勤, 1320~1376), 백운경한(白雲景閑, 1299~1375) 등의 선사들에 의해 조계종단의 선풍이 정착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선사들의 활동과 임진왜란기에 조선을 구하는데 앞장선 서산휴정(西山休靜,

!520~1604) 등의 수행력으로 조계종풍이 현대에 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⁸⁾

일제 강점기인 1921년 12월에 설립된 선학원은 당시 불교계를 이끌고 있던 만공(滿空), 용성(龍城), 도봉(道峰), 석두(石頭), 남전(南泉), 성월(惺月) 등의 스님들에 의해 설립되었다.⁹⁾ 설립 당시 선학원의 명칭은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이었다. 설립당시 기본 재산은 당시 전통사찰과 스님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출연하여 형성하였다. 선학원은 1962년 통합종단으로 설립된 대한불교조계종단에 소속된 스님들인 만공(滿空), 한암(漢岩), 적음(寂音), 성월(惺月), 남전(南泉) 등이 설립 이사를 맡고, 서호(西湖), 탄옹(炭翁) 등이 감사를 담당하였다. 당시 선학원은 “한국불교선리의 수행 및 연구에 의하여 승려 및 일반불교도에게 정신수양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립 목적을 제시하였다.¹⁰⁾

현재 선학원은 조계종단과 분리되어 별도의 재단법인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선학원 산하의 사찰들은 대부분 선원이라는 이름을 띠고 있으나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선원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학원 산하 사찰들은 불자들의 신행활동 공간으로 이용되는 반면에 전문적인 수행 시설과 독자적인 수행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여 기능적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대중선원을 이끌 수 있는 방장이나 조실 급의 간화선 수행 인력의 부족과 대중화된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조계종단의 수행적 위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전국의 선원 운영실태와 선원에 방부 드리는 수행자의 수로 확인할 수 있다. 조

8)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간화선』, 조계종출판사, 2005, p.33~45.

9) 선학원이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것은 1934년 12월 5일이었다. 財團法人朝鮮佛教中央禪理參究院 寄附行爲定款 참조. 1964년 정관에서 현재의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0) 1964년 재단법인 선학원 정관 참조.

계종단에서는 소속된 전국의 각 선원에서 하안거와 동안거에 방부 들이는 수행자의 수는 매년 선원별로 정리되어 선사방함록으로 발표하고 있다.

전국선원수좌회가 정리한 <갑오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2014년도 동안거에는 8대 총림을 비롯해 전국 98개 선원에서 2,196명의 스님들이 본래면목을 찾아 정진했다.¹¹⁾ 2015년도 <을미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102개 선원에서 2162명의 스님들이 정진했다. <을미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102개 선원(총림 8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35곳)에서 총 2,186명(총림 307명, 비구 1129명, 비구니 750명)의 대중이 안거에 들어 정진했다.¹²⁾ 2016년도 <병신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하안거 결제기간 동안에는 8개 총림, 비구 선원 59곳, 비구니 선원 33곳 등 전국 100개 선원에서 2,200여 명의 스님이, <병신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6개 선원(총림 8곳, 비구선원 56곳, 비구니선원 32곳)에서 총 2,063명(총림 283명, 비구 스님 1093명, 비구니 스님 687명)의 스님들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¹³⁾

2017년 <丁酉年 夏安居 禪社芳躑錄>에 의하면 전국 99개 선원(총림 8곳, 비구선원 57곳, 비구니선원 34곳)에서 총 2053명(총림 276명, 비구 1092명, 비구니 685명), <丁酉年 冬安居 禪社芳躑錄>에 의하면 전국 94개 선원에서 모두 2,032명의 대중이 동참했다.¹⁴⁾ 2018년 <戊戌年 夏安居 禪社芳躑錄>에 의하면 전국 97개 선원(총림 8곳, 비구선원 56곳, 비구니선원 33곳)에서 총 2000명(총림 280명, 비구 1,069명, 비구니 651명), <戊戌年 冬安居 禪社芳躑錄>에 따르면 전국 97개 선원(총림 8개, 비구 선원 56개, 비구니 선원 33개)에서 총 2,000명(총림 280명, 비구 1069명, 비구니 651명) 대중이 동참했다.¹⁵⁾ 2019 기해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

11) 불교신문, 2015년 3월 12일자 기사 참조.

12) 불교신문, 2016년 2월 18일자 기사 참조.

13) 불교신문, 2017년 2월 29일자 기사 참조.

14) 불교신문, 2018년 3월 6일자 기사 참조.

국 98개 선원(총림 8곳, 비구 선원 54곳, 비구니 선원 36곳)에서 총 1991명(총림 270명, 비구 1058명, 비구니 663명)에 달하는 대중이 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전국의 동안거 및 하안거 수행처는 2015년도에 102개를 정점으로 하여 2019년도에는 98개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리고 방부를 드린 수행자의 수도 2014년 동안거 2,196명을 정점으로 2019년 하안거 1991명으로 다소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전국에는 약 100여개의 선방에서 2,000여명의 수행자들이 매년 정진함으로써 조계종단은 간화선 수행의 중지중풍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행풍토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종정예하를 비롯하여 총림의 방장스님과 소임자 스님들, 그리고 각 선방의 조실 스님들이 여실하게 후학들을 제접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종정예하와 각 선원의 방장스님들은 매 안거의 입재와 해재일에는 대중범어를 통해서 모든 수행자와 불자들의 수행과 정신을 점검해 줌으로써 용맹정진할 수 있는 정신적 의지처가 되어 주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조계종단의 수행적 위상이 고양되기 위해서는 수행자의 수행적 지도력이 사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중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자비심이 발휘될 때 수행자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위빠사나, 사마타 등의 남방불교 수행법이 유입됨으로써 가치중립적인 명상이라는 용어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간화선을 바탕으로 하는 수행적 전통과 체계를 확실하게 하면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종교적 위상과 역량

15) 불교신문, 2019년 2월 20일자 기사 참조.

16) 불교신문, 2019년 8월 13일자 기사 참조.

대한불교조계종단은 한국사회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종교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종단의 위상은 조계종단이 계승한 유형문화 및 무형문화의 전통성, 종단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토지와 사찰, 다수의 수행자와 많은 신도들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또한 역사적 질곡에서 구국과 호법의 정신으로 활동한 많은 고승대덕 선지식들의 활동도 종단의 사회적 위상을 고양시켰다.

조계종단에서 종책적으로 전개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대표적인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깨달음의 사회화는 일종의 사회적 결사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결사(結社)는 불교 내부에서 큰 변화를 모색하는 수행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보조지눌 선사에 의해 주도된 정혜결사는 고려시대에 불교를 쇄신하며 종지종풍을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 봉암사 결사는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흐트러진 수행가풍을 회복하고 청정종단의 구현에 기여했다.

불교의 대사회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로는 용성스님이 주도한 대각회의 ‘대각운동,’ 광덕스님이 제시한 ‘바라밀운동,’ 범정스님이 이끌었던 ‘맑고 향기롭게,’ 정토회 법륜스님이 이끄는 ‘빈 밥그릇 운동’ 등이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운동이 불교계 내부, 혹은 개별 사찰이나 스님의 주도로 유지되다가 주창한 스님이 열반하면 소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불교계가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물질문명의 발달, 지식정보의 대량유통 등으로 인해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고 그 과정에서 문화지체와 정신적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이기주의와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다양한 유형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중재하고 화합으로 도모하면서 서로의 이익과 발전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종교단체의 활동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에서 불교의 종교적 위상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대표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면 다종교

사회에서의 경쟁력 약화라고 진단할 수 있다.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종교는 불교 이전의 무속신앙, 삼국시대에 정착한 불교, 조선시대에 사회규범으로 확산된 유교,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가톨릭과 개신교 등을 비롯하여 이와 연관된 신흥종교 단체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다종교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교계는 서구의 학문, 의학, 교육, 복지 등을 배경으로 유입된 기독교에 비하여 사회적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가 종교가 아닌 국가와 공공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종교계 전체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종교에 의지하던 사회구성원들이 더 이상 종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종교의 사회적 위상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불교는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에서 상당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웃종교들에 비하여 불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포교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교는 전통적인 정신적 자산, 각종 유형 및 무형 문화재, 그리고 막대한 토지를 비롯한 물질 토대에 의존하여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그 결과 불교인구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출가자 수 감소와 포교역량 약화는 불교계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조계종단을 포함한 불교계가 사회적으로 과거와 같은 종교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교운동을 거시적 포교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각과 실천’, ‘문화와 치유’, ‘현대인을 위한 팔정도’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대사회적인 문화 및 정신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자각과 실천’ 운동은 수행과 실천을 겸비하기 위한 불교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불교공부가 법당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화와 치유’는 일상의 생활문화를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는 길을 찾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음식, 차, 그림, 노래, 운동 등 일상의 활동이 오랜 세월 축적되면 문화가 되고 그 문화 속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치유 효과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자각하고 관찰하고 집중하게 한다면 곧 명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팔정도는 계행을 실천하는 정어, 정업, 정명, 선정을 닦는 정정진, 정념, 정정, 지혜를 증득하는 정사유와 정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팔정도의 가르침은 곧 일상에서의 실천을 위한 도성제(道聖諦)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렇지만 팔정도의 설명은 지나치게 수행자 위주의 전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IV. 결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계종단은 문화, 교육, 수행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정통 종단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하면 고도정보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향후 불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보편화된 사회 속에서 현재와는 다른 획기적인 종교적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인공지능이 불교에 적용된다면 가장 먼저 방대한 경전이 모두 데이터로 축적되고 매우 쉽게 검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경전의 내용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독송해 주고 경전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각종 논서(論書)들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경전을 읽지 못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사찰 관리, 안내, 기도, 신도교육, 문화해설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인공

지능은 매우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실행활동은 지적 측면을 넘어서 신구의의(身口意) 삼업(三業)으로 체득해야만 하고, 정신적 수행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역할은 현재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급 사찰에서는 문화체험과 상담, 사찰음식과 차의 제공, 그리고 수행자와의 법담을 나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포교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조계종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위상, 그리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는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종교적 역할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역할은 그 시대 사람들이 직면하는 정신적 고통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설정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사회는 인구수에 비하여 일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고, 자연환경 변화로 다양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 국가는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지만 인간의 정신적 갈등과 고통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수행을 활용한 정신적 치유 방법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단은 현재의 위상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적 역할을 찾기 위해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게리 하멜, C.K. 프라할라드 지음, 김소희 옮김,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경쟁전략』, 21세기북스, 2011.
- 김위찬, 르네마보안 공저, 김주희 옮김, 『블루오션 경영』, 유엑스 리뷰, 2020.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간화선』, 조계종출판사, 2005.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진국 본말사 주지연수 자료집』, 2006.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한국불교사』, 조계종출판사, 2011.
- 랄프 쇼이스 지음, 안성철 옮김, 『전략사전』, 옥당, 2013.
- 미타니고지 지음, 김정환 옮김, 『경정전략논쟁사』, 2013.
- 샘 해리스 저, 짐원욱 옮김, 『종교의 종말』, (주)한언, 2005.
- 財團法人朝鮮佛教中央禪理參究院 寄附行爲定款, 1964.

Abstract

Status and Competency of the Jogye Order in Korean Society

Kim, Eung-chul

(Professor, Joong Ang Sangha University)

The status of religious organizations is formed by the combin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the religious nature of members of society, the distribution of religion, the historical nature of religion, cultural leadership, spiritual influence and social activities. In Korean society, the Jogye Order gained today's status with the accumulation of various social evaluations and reputations. The Jogye Order inherits the 1,700-year-old tradition of Korean Buddhism and holds various cultural assets. The Jogye Order has such status and capabilities because it was legally recognized as the nation's only Buddhist sect when the integrated sect was launched in 1962.

The launch of the integrated sect has led to a renewal of the Buddhist meditation climate. It was also a landmark event in which Buddhist conflicts that had continued sinc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s colonial rule were resolved and harmonized. This incident allowed the Jogye Order to be recognized as the only sect in the Buddhist community. And all traditional temples and cultural heritages across the country could be inherited by the Jogye Order. They are inherited various cultural assets from the Silla Dynasty, as well as traditions such as discipline mediation and wisdom.

In the future, Buddhism must respon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oriented changes, and seek innovative religious role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oday. I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pplied to Buddhism, the vast scriptures are all accumulated in data and can be searched very easily. Each temple can build a new foundation for missionary work by providing cultural experiences and counseling, temple food, tea and dialogue services with monks.

Therefore, it is time to mobilize all the assets, status and capabilities that the Jogye Order currently has to seek a new religious role in a future society that is repla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Key words

Buddhism, Jogye Order, Capability, Strategic Model, Change